農村醫學·地域保健學會誌 : 第31券 第3號(2006年 12月)
J Agri Med & Community Health 2006;31(3):255~262

부산지역 보건소 방문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육아실태 및 육아교육 효과

함영희[1], 김희영[1], 이명진[1], 강지혜[1], 손혜숙[2], 박인숙[2], 김윤희[3]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1], 인제의대 예방의학교실[2], 부산시 금정구 보건소[3]

The Status of Child Rearing and the Effect on Education for Child Rearing of Public Health Center, Busan

Young-Hee Ham[1], Hee-Young Kim[1], Myoung-Jin Lee[1], Jee-Hye Kang[1], Hye-Sook Sohn[2], In-Sook Park[2], Yoon-Hee Kim[3]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ersity[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Inje Medical School[2],
Busan City GumJung Community Health Center[3]

= ABSTRACT =

Objectives: To evaluate the effect on education for child rearing using child-growth developmental screening program that hat had been developed by the maternal-child health services team in a public health center, Busan area, the rates of practicing proper child rearing between educated group and non-educated group were compared.

Methods: Subjects were 596 mothers whose children were between 2 and 15 months old and who had visited two public health centers in Busan area for vaccination. Subjects checked the items that they are practicing for child rearing, the rates of items properly be practiced were compared between educated group and non-educated group by chi-square test. The effect of education in 2, 4, 6, 12 months old were observed in 4, 6, 12, 15 months old, respectively.

Results: The percentages of the items that practice rate of proper child rearing was over 50% were not different by monthly age. In 4 months age, the proper practice rates of three items among eleven item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ducated group than in non-educated group. In 6 and 12 months age, those of two items and one item among fourteen items were higher respectively in the educated group than in non-educated group. In 15 months age, there was no item among thirteen that is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Conclusions: As monthly ages are increasing, the practice rates of proper child rearing were decreased. In a few items, the practice rates of proper child rearing were higher in the educated group than in non-educated group. It suggests that the program that increase the effect on education of child rearing was developed and performed in public health centers.

Key Words : Child rearing, Public health center, Education

* 교신저자: 손혜숙, 부산광역시 진구 개금동 633-165, 전화: 051-890-6993, 팩스: 051-896-9373,
핸드폰: 011-9206-2360, E-mail: pmshs@inje.ac.kr

서 론

영유아기는 생애주기의 출발점으로 이 시기의 성장과 발달은 한 개인의 평생건강의 기초가 되며, 이 시기의 건강은 사회의 건강잠재력과 재생산에 영향을 미쳐 차세대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영유아기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대한 포괄적인 건강관리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1].

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육아클리닉 등을 통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발달상태 사정을 통하여 건강 및 발달장애문제에 취약하거나 위험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신체적, 인지적 발달을 위한 건강지도 및 상담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으며, 모자보건프로그램에서는 저소득층 영유아를 중심으로 영양보조, 신체검사, 가족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2]. 일본에서도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영유아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포함하여 저체중아에 대해서는 방문 지도를 통해 양육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3].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말 까지 보건소에서 영유아 보건사업으로 영유아 등록사업, 예방접종, 건강검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이 있으나 예방접종을 제외하고는 그 활동이 미미하여[4], 성장 발달 스크리닝이나 양육교육과 상담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소아과 및 기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의료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아 성장발달이나 양육교육보다는 질병치료 위주의 진료를 하고 있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과 서비스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민간 및 공공보건기관에서 모두 무시되어 왔다.

모자보건 선도사업 평가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결과분석연구[5], 아동건강관리 프로그램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6], 모자보건선도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7]등이 수행되었으며, 부산지역에서는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수행 현황 및 효과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보건소에서 모자보건 선도사업을 통하여 개발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영유아 양육실태와 교육효과를 관찰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부산광역시 소재 보건소 중 모자보건 선도사업에서 개발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2개 구 보건소에서 2002년 1월에서 12월 사이 출생한 영유아 중 본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1회 이상 체크리스트를 실시한 703명의 영유아모를 전화 설문하고 이에 응답한 5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1) 설문조사

연구대상 596명의 설문내용은 총 3문항으로 영유아모 학력, 영유아 성별, 주거상태에 관한 것을 전화설문으로 조사하였다.

2) 성장단계별 양육체크리스트

부산광역시 소재 1개 보건소가 모자보건 선도사업에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도구인 양육체크리스트 8종(2, 4, 6, 9, 12, 15, 18, 24개월)과 부모교육용 자료 25종을 활용하였다. 양육체크리스트와 부모교육용 자료는 보건소 특성상 적은 인력으로 많은 대상자에게 양육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유아 발달 클리닉을 운영하는 아동간호학 박사가 문헌고찰 및 수년간의 양육 상담 및 교육경험을 통해 1차 개발하였으며, 양육체크리스트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3년이상 보건소 모자보건 실무 경험이 있는 담당자 2인과, 소아과 전문의, 예방의학교수

가 4차례 논의를 거쳐 완성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Win ver.10.0을 이용하여 보건소의 이전 방문 시 성장발달 스크리닝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개월별 올바른 양육 실천율을 chi-square test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영아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고졸이하 58.4%, 대졸이상자 41.6%로 나타났으며, 주거상태는 자택 65.3%, 전세 30.2%, 월세0.8% 순이었다(표 1).

2. 2개월 양육 실태

처음 방문한 영유아 2개월 시점에는 양육교육이 이전에 실시될 수 없으므로 2개월에 해당되는 양육실태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가장 높은 실천율을 나타낸 항목은 "엎어 재우고 있다" (95.5%)였고, 가장 낮은 실천율을 보인 것은 "목욕은 매일 시키고 있다"(30.2%) 이었으며, "보채지 않으면 안아주지 않는다" (32.2%), "모유나 분유를 시간 관계없이 수시로 주고 있다"(36.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

3. 2개월 양육교육여부에 따른 4개월 양육 실천율 비교

4개월 영아에게 중요한 양육 내용으로 구성된 총 11개 문항 중 양육 실천율이 50%를 넘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대상자 수	%
영유아 성별	남	312	52.3
	여	284	47.7
학력(모)	고졸이하	348	58.4
	대졸이상	248	41.6
주거상태	자택	389	65.3
	전세	180	30.2
	월세	5	0.8
	기타	22	3.7
계		596	100.0

표 2. 생후 2개월 영아의 올바른 양육 실천정도

항 목 별 내 용 (정답)	실천자수 n=245	%
엎어 재우고 있다(아니오)	218	95.5
영양제나 정장제, 기타 약을 먹이고 있다(아니오)	195	82.7
아기가 밤중에는 깊은 잠을 자지 않고 자주 깬다(아니오)	187	76.3
기응환이나 청심환을 먹이고 있다(아니오)	175	71.4
분유는 보리차나 영양가 있는 무엇을 첨가한 물에 분유를 타고 있다(아니오)	124	50.6
밤중 수유는 신생아 때와 같이 하고 있다(아니오)	114	46.3
모유나 분유를 시간관계 없이 수시로 주고 있다(아니오)	89	36.3
심하게 보챌 때만 안아준다(아니오)	79	32.2
목욕은 매일 시키고 있다(아니오)	74	30.2

표 3. 이전 양육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생후 4개월의 올바른 양육 실천정도

단위:명(%)

항목별 내용(정답)	2개월 상담여부		전체	p값
	무(n=145)	유(n=168)	(n=313)	
분유는 보리차나 영양가 있는 무엇을 첨가한 물에 분유를 타고 있다(아니오)	72(49.7)	114(67.9)	186(59.4)	.001
기응환이나 청심환을 먹이고 있다(아니오)	88(60.7)	147(87.5)	235(75.1)	.000
영양제나 정장제, 기타 약을 먹이고 있다(아니오)	92(63.4)	132(78.6)	224(71.6)	.004
모유나 분유를 시간 관계없이 수시로 주고 있다(아니오)	60(41.4)	66(39.3)	126(40.3)	.730
밤중 수유를 하고 있다(아니오)	49(33.8)	45(26.8)	94(30.0)	.216
목욕은 매일 시키고 있다(아니오)	72(49.7)	73(43.5)	145(46.3)	.307
이유식을 먹이고 있다(예)	80(55.2)	89(53.0)	169(54.0)	.734
이유식을 우유병에 넣어 먹이고 있다(아니오)	91(62.8)	103(61.3)	194(62.0)	.816
과일주스를 50 cc 이상 먹이고 있다(아니오)	117(80.7)	134(79.8)	251(80.2)	.887
보행기를 타고 있다(아니오)	87(60.0)	88(52.4)	175(55.9)	.209
모유수유중이나 6개월이 지나면 모유를 끊고 분유를 먹이려고 생각한다(아니오)	53(36.6)	76(45.2)	129(41.2)	.135

는 문항은 7개(63.6%)였다. 4개월 영유아의 양육내용 중 '분유 타는 방법', '기응환이나 청심환 사용' 및 '영양제 및 정장제 복용'에 대하여 2개월 때 보건소를 방문하여 양육 상담을 받은 군에서 받지 않은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실천율을 보였다(표 3).

4. 4개월 양육교육여부에 따른 6개월 양육 실천율 비교

6개월 영아의 양육이 필요한 총 14개 문항 중 양육 실천율이 50%를 넘는 문항이 71.4%(10개)로 월령 중에서는 가장 높았으나 다른 월령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6개월 영유아의 양육내용 중 '기응환이나 청심환 사용', '이유식 방법', '보행기 사용'에 대하여 이전 개월 보건소 방문 시 양육 상담을 받은 군에서 받지 않은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실천율을 보였다(표 4).

5. 6개월 양육교육여부에 따른 12개월 양육 실천율 비교

12개월 영아의 양육 내용 총 14개 문항 중 양육 실천율이 50%를 넘는 문항이 9개로 64.3%였다. 12개월 영유아의 양육 내용 중 '컵 사용'에 대하여 양육 교육을 받은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실천율을 보였다(표 5).

6. 12개월 양육교육여부에 따른 15개월 양육 실천율 변화

15개월 된 유아의 양육 내용 총 13개 문항 중 양육 실천율이 50%를 넘는 문항은 8개, 61.5%였다. 12개월 양육교육여부에 따른 15개월 영유아에 대한 양육 실천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이 없었다(표 6).

고 찰

모자보건 서비스는 충분한 상담을 포함한 건강보호, 유지 및 증진을 포함하는 예방적 서비스가 주된 사업으로, 특히 공공보건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서 많은 대상자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8]. 그러

표 4. 이전 양육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생후 6개월의 올바른 양육실천정도

단위:명(%)

항목별 내용(정답)	4개월 상담여부		전체	p값
	무(n=147)	유(n=195)	(n=342)	
보행기를 타고 있다(아니오)	23(8.2)	40(20.5)	63(18.4)	.002
기응환이나 청심환을 먹이고 있다(아니오)	96(65.3)	156(80.0)	252(73.7)	.003
이유식을 우유병에 넣어 먹이고 있다(아니오)	81(55.1)	128(65.6)	209(61.1)	.031
밤중 수유를 하고 있다(아니오)	45(30.6)	59(30.3)	104(30.4)	1.000
영양제나 정장제, 기타 약을 먹이고 있다(아니오)	98(66.7)	144(73.8)	242(70.8)	.152
이유식을 먹이고 있다(예)	136(92.5)	175(89.7)	311(90.9)	.449
이유식을 하루에 두 번 정도 먹인다(예)	108(73.5)	142(72.8)	250(73.1)	.903
과일주스를 50 cc 이상 먹이고 있다.(아니오)	88(59.9)	132(67.7)	220(64.3)	.140
두유를 먹이고 있다(아니오)	117(79.6)	165(84.6)	282(82.5)	.252
요구르트와 치즈를 먹이고 있다(아니오)	111(75.5)	140(71.8)	251(73.4)	.461
컵을 사용한다(예)	31(21.1)	55(28.4)	86(25.1)	.133
공갈 젖꼭지를 빨고 있다(예)	107(72.8)	152(77.9)	259(75.7)	.308
양치질을 시키고 있다(예)	72(49.0)	82(42.1)	154(45.0)	.228
영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예)	77(52.4)	111(56.9)	188(54.9)	.443

표 5. 이전 양육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생후 12개월의 올바른 양육 실천정도

단이:명(%)

항목별 내용(정답)	6개월 상담여부		전체	p값
	무(n=41)	유(n=66)	(n=107)	
컵을 사용한다(예)	27(65.9)	57(86.4)	84(78.5)	.016
밤중 수유를 하고 있다(아니오)	23(56.1)	33(50.0)	56(52.3)	.557
과일주스를 하루에 120 cc이상 먹이고 있다(아니오)	28(68.3)	41(62.1)	69(64.5)	.541
두유를 먹이고 있다(아니오)	18(43.9)	35(53.0)	53(49.5)	.428
양치질을 시키고 있다(예)	25(61.0)	44(66.7)	69(64.5)	.678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보여준다(아니오)	5(12.2)	11(16.7)	16(15.0)	.398
아기에게 "안돼"라고 말했을 때 아기가 하려던 것을 멈추고 눈치를 본다(예)	38(92.7)	58(87.9)	96(89.7)	.526
이유식을 먹이고 있다(아니오)	2(4.9)	10(15.2)	12(11.2)	.125
밥과 반찬(야채, 고기, 생선)을 주식으로 하루 3끼를 먹고 있다(예)	26(63.4)	40(60.6)	66(61.7)	.839
아기가 스스로 숟가락을 사용하여 밥을 먹거나 먹으려고 노력중이다(예)	25(12.2)	39(59.1)	64(59.8)	.839
분유를 끊었거나 끊으려고 하고 있다(예)	10(24.4)	15(22.7)	25(23.4)	1.000
우유병을 끊었거나 끊으려고 하고 있다(예)	20(48.8)	30(45.5)	50(46.7)	1.000
대소변 가리기를 연습하고 있다(아니오)	28(68.3)	46(69.7)	74(69.2)	1.000
자주 칭찬을 한다(예)	39(95.1)	58(87.9)	97(90.7)	.311

표 6. 이전 양육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생후 15개월의 올바른 양육실천정도

단위:명(%)

항목별 내용(정답)	12개월 상담여부		전체	p값
	무(n=45)	유(n=4)	(n=49)	
밤중 수유를 하고 있다(아니오)	28(62.2)	3(75.0)	31(63.3)	.987
두유를 먹이고 있다(아니오)	14(31.1)	1(25.0)	15(30.6)	.987
컵을 사용한다(예)	36(80.0)	3(75.0)	39(79.6)	.988
양치질을 시키고 있다(예)	37(82.2)	4(100.0)	41(83.7)	.927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보여준다(아니오)	3(6.7)	0(0.0)	3(6.1)	.979
이유식을 먹이고 있다(아니오)	11(24.4)	2(50.0)	13(26.5)	.284
밥과 반찬(야채, 고기, 생선)을 주식으로 하루 3끼를 먹고 있다(예)	32(71.1)	4(100.0)	36(73.5)	.562
아기가 스스로 숟가락을 사용하여 밥을 먹는다(예)	25(55.6)	2(50.0)	27(55.1)	.997
분유를 끊고 생우유를 먹이고 있다(예)	12(26.7)	2(50.0)	14(28.6)	.568
우유병을 끊었거나 끊으려고 하고 있다(예)	16(35.6)	1(25.0)	17(34.7)	.992
대소변 가리기를 연습하고 있다(아니오)	30(66.7)	3(75.0)	33(67.3)	.995
간단한 심부름을 아기에게 시키고 있다(예)	38(84.4)	4(100.0)	42(85.7)	.972
아기에게 좋은 생활습관을 가르친다.(예) (식사예절, 스스로 하기)	33(73.3)	2(50.0)	35(71.4)	.568

나 지금까지 보건소 주도의 기존 모자보건사업은 그 내용이 예방접종 위주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모성과 영유아를 위한 적절한 보건사업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1999년 정부 주도로 전국 23개 보건소를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로 지정하여 모자보건 선도사업을 실시하였다[9].

모자보건 선도사업은 기존의 예방접종 이외에 영유아 성장발달 관리 등 모성과 영유아를 위한 적절한 건강 행위를 유도하여 실천시키기 위한 것으로 모성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실시된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므로 사업의 확대 발전이 가능하다.

부산시에서 보건소에서 개발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도구를 활용하여 수행한 영유아 육아교육의 효과를 관찰하는 것은 보건소의 영유아 보건사업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시도하였다.

월령별로 올바른 양육 실천율이 50%가 넘는 항목이 전체 항목 4개월, 6개월, 12개월 및 15개월 내용 각각에서 63.6%, 71.4%, 64.3%, 61.5%로 영유아의 월령에 따른 어머니의 올바른 양육 실천율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여러 월령에 반복되는 양육 항목에 대한 올바른 실천율도 월령이 높아져도 증가하지 않고 부적절한 양육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여러 월령에 거쳐 중복되는 양육 내용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체적인 올바른 양육실천을 이끄는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장단계별 양육실태에 대한 연구결과 중 2개월 양육실태에서 가장 낮은 올바른 실천율을 나타낸 문항은 '목욕은 매일 시키고 있다'였는데 매일 비누를 이용한 목욕은 과다한 피지제거로 피부보호막 형성을 방해하므로 2-3일에 한번 정도의 목욕이 영아기 피부건강에 더 좋으나[10], 전통적인 양육방식에 의하여 매일 목욕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보채지 않으면 안아주지 않는다'에 대한

'예' 라고 말한 이유는 많이 안아주면 양육자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양육자와의 질적인 신체접촉이 영아의 정서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임을 감안해 볼 때 [11] 신생아 양육에서 충분한 영유아와 산모와의 신체접촉 필요성을 인지시켜야 할 것이다.

영유아 2개월에 예방접종을 위하여 방문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양육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4개월 예방접종을 위하여 방문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영유아 2개월 당시 양육교육 유무에 따른 양육 실천율을 비교한 경과 '분유를 타는 방법', '영양제나 정장제 기타 약의 사용', '기응환이나 청심환의 사용'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 군에서 실천율이 높았다. 이는 총 11문항 중 3문항으로, 교육의 효과가 만족할 정도는 아니었다.

영유아 4개월에 실시한 교육효과는 6개월 방문 시 총 14문항 중 2문항에서 관찰되었으며, 6개월 방문 시 실시한 교육효과는 12개월 양육내용 총 14문항 중 1문항에서 관찰되었고, 12개월 방문 시 실시한 교육효과는 15개월 양육내용 총 13문항 모두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관찰한 양육교육의 효과는 영유아의 월령이 증가할수록 떨어져 이는 영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올바른 양육방법 실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어머니들이 관심이 적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어 영유아의 월령이 증가할수록 더 적극적인 교육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적은 보건소 인력으로 많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양육교육을 실시해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예방접종을 목적으로 방문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육교육의 효과는 만족할 수준이 아니었다.

부산지역에서는 기존 개발한 도구를 통한 지역 영유아의 올바른 양육 실천율을 높이기 위하여 어머니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양육교육 접근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요 약

영유아의 중요한 양육 항목의 올바른 실천율이 전체 항목의 약 60-70%에 불과하였고,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겸하여 실시한 양육교육으로는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어 교육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의 월령이 증가할수록 교육효과가 낮아졌다. 전반적인 올바른 양육실천 정도를 높이고, 영유아의 월령 증가하더라도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관심을 지속 유지시킬 수 있으며,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접근법을 모색하여 수행할 것을 제안하며, 수행되는 교육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본 프로그램을 개선 발전시킨다면 부산지역 영유아의 올바른 양육 실천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한경자.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봄의 부담감과 지지, 교육 및 상담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아동간호학회지 1997;3(3):228-240
2. 신혜숙. 여성건강증진. 대한간호 1997;36(5):6-17
3. 김진순. 모자보건사업의 질적 개선 및 확대방안.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997;1(2):248-256
4. 김귀연. 모자보건사업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997;1(2):239-247.
5. 방경숙, 김용순, 박지원, 이혜정. 일개시 보건소의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결과 분석. 아동간호학회지 2001;8(3):302-312.
6. 강희경. 아동건강관리 프로그램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북제주군 모자보건선도 보건사업을 중심으로-. 아동간호학회지 2000;6(1):103-111
7. 김용순, 박지원, 방경숙, 정순이, 우혜숙, 이혜정, 장현순. 일개시 보건소의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 평가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간

호학회지 2002;13(2) :280-291
8. 황금복, 전미순, 김진순, 박정한. 공공부문의 지역모자보건사업 기본모형개발.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998;2(2):133-146
9. 사상구보건소. 3차년도 모자보건선도사업보고서. 부산광역시 사상구보건소, 2001.
10. 하정훈. 삐뽀삐뽀 119소아과. 그린비출판사, 2000
11. 김태임.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지각 및 양육태도와 초기수유 상황에서 모아 상호작용양상과의 관계.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1